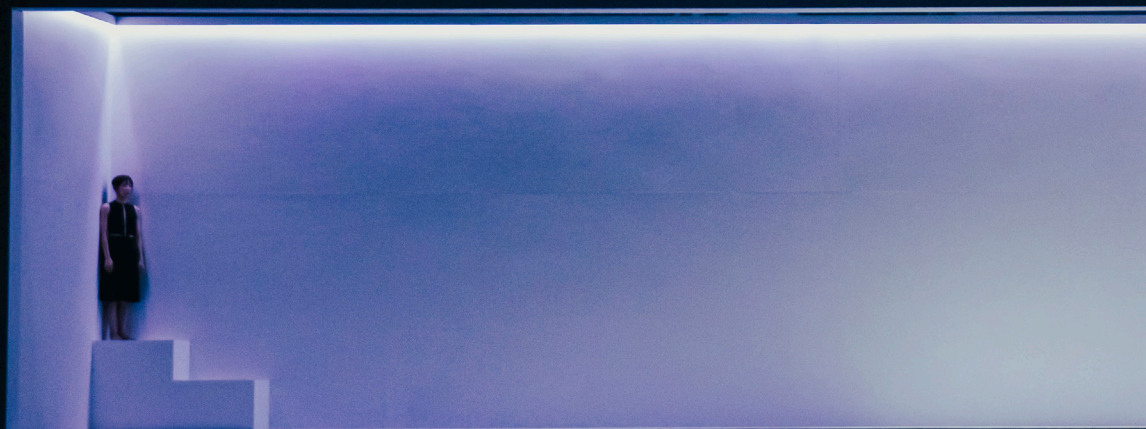


SEOUL METROPOLITAN BALLET

SEOUL METROPOLITAN BALLET

A NEW ERA OF CONTEMPORARY BALLET IN KOREA

시대와 호흡하는
대한민국 컨템퍼러리 발레의 개막





주재만_한여름 밤의 꿈

SEOUL METROPOLITAN BALLET

서울시발레단

2024년, 역사적 출발을 알린 서울시발레단은 대한민국 유일의 공공 컨템퍼러리 발레단입니다. 전문성과 유연함에 기반한 프로덕션 중심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서울시발레단은 안무가와 무용수, 작품을 중심에 둔 공연별 맞춤형 프로덕션으로 생동하는 오늘의 발레를 만들어갑니다. 서울시발레단은 국내외 최고의 창작진과 무용수들이 모여 동시대적인 성찰과 사유를 담은 과감하고 대담한 작품들로 대한민국 발레의 혁신을 일구어가고자 합니다. 발레 아티스트에게는 더 넓은 기회와 가능성을, 관객에게는 더 깊고 풍부한 상상력과 신선한 충격을 선사할 서울시발레단의 특별한 시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Seoul Metropolitan Ballet made history in 2024 as Korea's first and only public contemporary ballet company. Built on expertise and flexibility, it operates a production-centered system, creating dynamic performances that highlight choreographers, dancers, and their works. Bringing together top artists from Korea and beyond, the company redefines Korean ballet with bold, thought-provoking pieces that capture the spirit of our time. For artists, it opens new opportunities; for audiences, it offers deeper, more immersive experiences. The extraordinary journey of Seoul Metropolitan Ballet begins now.





SEASON DANCERS

시즌 무용수



생동하는 에너지와 열정으로 대한민국 컨템퍼러리 발레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주역들.
서울시발레단의 시즌 무용수입니다.

The season dancers of Seoul Metropolitan Ballet—
driving the future of contemporary ballet in Korea with passion and energy.

GUEST PRINCIPAL DANCERS

객원수석

해외 유수 발레단에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무용수,
서울시발레단의 객원수석으로 함께합니다.

Seoul Metropolitan Ballet is proud to welcome renowned Korean dancers
from leading international ballet companies as guest principal art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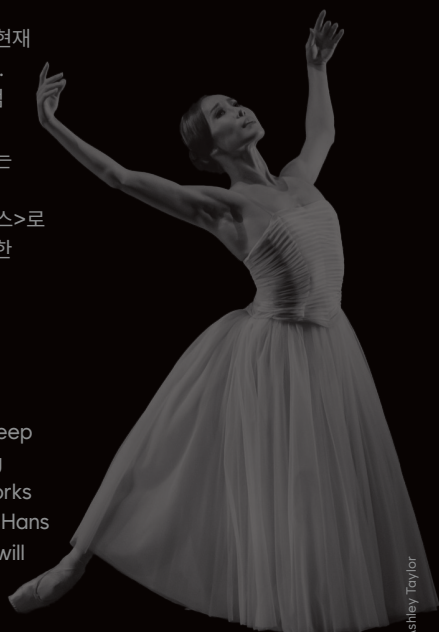


강효정

강효정은 독인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을 거쳐 현재
빈 국립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로 활동 중이다.
클래식 레퍼토리는 물론 한스 판 마넨, 윌리엄
포사이드 등 세계적 안무가의 컨템퍼러리
작품에서도 깊이 있는 해석과 카리스마 넘치는
표현력으로 남다른 무대를 선보여 왔다.
2025 시즌, 허용순의 <언더 더 트리스 보이스>로
서울시발레단과 첫 호흡을 맞추며 한층 농밀한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Kang Hyo-jung

Kang Hyo-jung, former Stuttgart
Ballet dancer and now a principal with
Vienna State Ballet, is known for her deep
interpretations and charisma, excelling
in both classical and contemporary works
by renowned choreographers such as Hans
van Manen and William Forsythe. She will
perform *Under the Trees' Voices* by
Hue Yong-soon for Seoul Metropolitan
Ballet's 2025 season.



© Ashley Taylor

© Nina Tonoli



이상은

이상은은 독일 드레스덴 젬퍼 오퍼 발레단 한국인 최초 수석 무용수를 거쳐, 현재 영국 국립 발레단에서 리드 수석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다. 클래식과 컨템퍼러리 작품을 넘나들며 섬세한 표현력과 탁월한 테크닉으로 세계의 관객과 평론가 모두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무용수이다. 2025 시즌 서울시발레단의 요한 잉거 <워킹 매드>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Lee Sang-eun

Lee Sang-eun, the first Korean principal dancer of Semperoper Dresden Ballet, is now a lead principal with English National Ballet. Renowned for her delicate expression and exceptional technique, she has captivated audiences worldwide in both classical and contemporary works. For Seoul Metropolitan Ballet's 2025 season, she will perform in Johan Inger's *Walking Mad*.

© Angela Sterling



최영규

네덜란드 국립 발레단 수석 무용수 최영규는 클래식과 컨템퍼러리 발레의 경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세계적인 안무가들의 작품 속에서 독보적인 기량과 강렬한 존재감을 선보여왔다. 매 순간 진정성 있는 춤으로 관객들에게 특별한 예술적 경험을 선사한다. 소속되어 있는 네덜란드 국립 발레단의 상주 안무가인 한스 판 마넨의 스페셜리스트로 서울시발레단의 2025 시즌, 한스 판 마넨의 대표작 중 하나인 <5 탱고스>로 한국 관객들과 만난다.

Choi Young-gyu

A principal dancer with Dutch National Ballet, Choi Young-gyu seamlessly blends classical and contemporary styles. Known for his powerful presence and artistry, he has performed works by various world's leading choreographers. A specialist in Hans van Manen's repertoire, Choi will appear in *5 Tango's* for the 2025 season of Seoul Metropolitan Ballet.

SEOUL METROPOLITAN BALLET

2025 LINE-UP

2024년 창단과 함께 대한민국 발레계에
'컨템퍼러리 발레'라는 화두를 던진 서울시발레단은
창단 2년 차를 맞아 세계 발레계를 선도하는
안무가들과 손을 잡고 우수 작품들을 선보이며
세계의 무대에서 컨템퍼러리 발레의 거점으로
도약을 시작합니다.

Inaugurated in 2024, Seoul Metropolitan
Ballet brings contemporary ballet to the
Korean audiences. Now in its second year,
it collaborates with top choreographers
worldwide, aiming to become a global hub.

DECADANCE



by Ohad Naharin
25.3.14—3.23
세종M씨어터

WALKING MAD & BLISS



by Johan Inger
25.5.9—5.18
세종M씨어터

NO MORE & 5 TANGO'S



by Ryu Hoi-woong & Hans van Manen
25.8.22—8.27
세종M씨어터

KAMMERBALLETT & UNDER THE TREES' VOICES



by Hans van Manen & Hue Young-soon
25.10.30—11.2
세종M씨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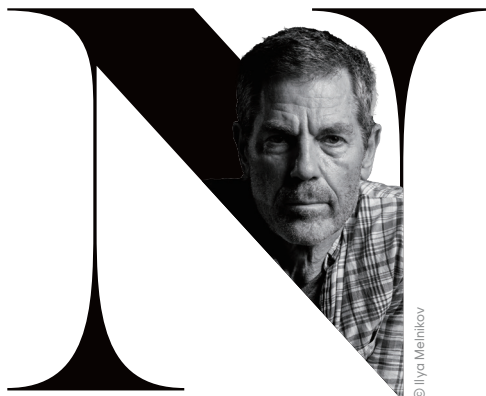
DECADANCE

<데카당스>

오하드 나하린 <데카당스>

이스라엘 출신으로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 안무가를 거쳐 이스라엘 바체바 무용단 예술감독을 역임했다. 물 흐르듯 순응하며 춤추는 독특한 신체 언어와 대담한 안무 스타일로 세계적 명성을 쌓으며 '가가'라는 움직임 언어를 새롭게 개발했다.

<데카당스>는 오하드 나하린의 대표작을 모아 재구성한 콜라주 형식의 공연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안무와 '가가'를 경험할 수 있다. 서울시발레단 버전의 <데카당스>는 이전에 선보이지 않은 새로운 구성으로 오하드 나하린의 독창적인 안무 세계와 시즌 무용수들의 탄탄한 양상בל을 만끽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 Ilya Melnikov

Ohad Naharin's *Decadance*

Israeli choreographer Ohad Naharin, the house choreographer of Batsheva Dance Company, is renowned for his bold style and fluid movement language. He developed Gaga, a groundbreaking dance method that has gained international acclaim.

Decadance features excerpts from Naharin's most iconic works showcasing his innovative choreography and the expressive power of Gaga. Seoul Metropolitan Ballet's interpretation presents a fresh arrangement, highlighting Naharin's vision and the strength of its season dancers for a truly unique stage experience.



WALKING MAD

<워킹 매드>

BLISS

<블리스>

요한 잉거 <워킹 매드> & <블리스>

‘무용계의 아카데미상’으로 알려진 브누아 드 라 당스 최고 안무상에 빛나며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안무가, 요한 잉거와 서울시발레단이 만난다.

요한 잉거는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 무용수 출신으로 쿨베리 발레단의 예술감독을 역임하며 전통적인 발레와 현대 무용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서울시발레단은 클래식 본연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도 시대적 감수성을 담은 요한 잉거의 대표작 <워킹 매드>와 <블리스>를 더블 빌로 구성해 아시아 초연한다.

센스있는 무대 활용과 재치, 유머가 돋보이는 <워킹 매드>와 가볍고 산뜻하면서도 깊이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블리스>로 컨템퍼러리 발레의 새로운 움직임, 또 다른 매력을 만나본다.



Johan Inger's *Walking Mad* & *Bliss*

Benois de la Danse-winning choreographer Johan Inger joins Seoul Metropolitan Ballet for a special collaboration. A former Nederlands Dans Theater dancer and Cullberg Ballet artistic director, Inger is known for blending classical ballet with contemporary dance.

For the first time in Asia, Seoul Metropolitan Ballet presents Inger's *Walking Mad* and *Bliss* in a double bill. *Walking Mad* brings wit, humor, and inventive staging, while *Bliss* enchants with fluid movement and deep expressiveness, offering a fresh take on contemporary ballet.



5 TANGO'S

<5 탱고스>

KAMMERBALLETT

<캄머발레>

한스 판 마넨 <5 탱고스> & <캄머발레>

현대 무용계의 살아있는 전설, 안무가 한스 판 마넨은 네덜란드의 주요 무용단인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와 네덜란드 국립 발레단의 상주 안무가로 활동했다. 정제된 단순함과 명료한 형식의 안무, 선명한 색채의 의상으로 '춤의 몬드리안'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혁신적이고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운 그의 안무는 컨템퍼러리 발레의 이정표가 되고 있으며, 반세기가 흐른 지금까지도 시대를 초월해 여전히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서울시발레단이 아시아 초연하는 <5 탱고스>는 피아졸라의 탱고 음악을 바탕으로 강렬한 리듬 아래 정교하고 세련된 발레 움직임을 균형감 있게 담아낸 작품으로 한스 판 마넨의 걸작 중 하나이다.

한스 판 마넨 작품의 정점이라 여겨지는 <캄머발레>는 24년 서울시발레단이 아시아 초연해 관객들에게 큰 여운을 남겼다.



© Erwin Olaf

Hans van Manen's *5 Tango's* & *Kammerballett*

A living legend of contemporary dance, Hans van Manen has been a resident choreographer for both Nederlands Dans Theater and Dutch National Ballet. Known for his refined simplicity, structured elegance, and bold use of color, he is often called the "Mondrian of Dance." His innovative, concise choreography has shaped contemporary ballet for over half a century. Seoul Metropolitan Ballet presents the Asian premiere of *5 Tango's*, Hans van Manen's masterpiece set to Astor Piazzolla's dynamic tango rhythms, blending precision and elegance in ballet. In 2024, the company also premiered *Kammerballett* in Asia, leaving a lasting impression on the audiences.



UNDER THE TREES' VOICES

<언더 더 트리스 보이스>

허용순 <언더 더 트리스 보이스>

독일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안무가 허용순은 현재 드레스덴 젬퍼 오퍼 발레단의 발레마스터로 활동하는 동시에 세계 유수의 발레단과 안무 작업을 펼치고 있다.

<언더 더 트리스 보이스>는 2024년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발레단에서 초연한 작품으로 이탈리아의 작곡가 에치오 보쑈의 아름다운 음악을 바탕으로 안무한 서정적인 작품이다. 속도감 있으면서도 섬세한 움직임으로 보쑈의 음악을 춤의 언어로 되살려내는 농밀한 무대가 기대된다.

Hue Young-soon's *Under the Trees' Voices*

Germany-based choreographer

Hue Young-soon is currently a ballet master at Dresden Semperoper Ballet and collaborates with top ballet companies worldwide.

Premiered in 2024 by Augsburg Ballet, *Under the Trees' Voices* is a lyrical work set to the evocative music of Italian composer Ezio Bosso. With swift yet delicate movements, the piece brings Bosso's melodies to life, offering audiences a deeply immersive and poetic experience.





NO MORE

<노 모어>

유희웅 <노 모어>

안무가 유희웅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그만의 위트 있는 시선과 움직임으로 풀어내는 독창적 작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4 시즌 서울시발레단 창단 사전 공연에서 선보인 신작 <노 모어>에서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피로감과 무력감을 라이브 드럼 비트에 맞추어 표현, 반복되는 일상을 초월하는 춤의 세계 그 자체를 구현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2025 시즌에는 초연보다 한층 에너지를 더한 새로운 무대로 관객을 찾아갈 예정이다.

Ryu Hoi-wong's *No More*

Choreographer Ryu Hoi-wong is gaining recognition for his distinctive works that tackle contemporary social issues with wit and dynamic movement.

In *No More*, Ryu explores the exhaustion and apathy of modern youth, brought to life through live drum beats. Breaking free from the monotony of daily life, the piece erupts into a raw, electrifying expression of dance, earning enthusiastic acclaim. For the 2025 season, *No More* returns with even greater intensity, delivering a powerful, high-energy performance that will captivate the audiences.









차진엽_백조의 잠수

SEOUL METROPOLITAN BALLET

REPERTOIRE

국내 유일의 공공 컨템퍼러리 발레단인 서울시발레단은 창단 첫째, 세계적 안무가의 신작 개발과 더불어 대표작을 아시아 초연하는 한편, 국내 창·제작진에게는 든든한 제작 플랫폼으로서 세계 무대를 향한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As Korea's one and only public contemporary ballet company, Seoul Metropolitan Ballet made a bold debut by premiering new works from world-renowned choreographers and presenting the Asian premieres of iconic pieces. Simultaneously, it provided a dynamic platform for domestic creators, marking a significant step toward the global stage.



A MIDSUMMER NIGHT'S DREAM

창단 공연 <한여름 밤의 꿈>

2024.8.23 — 8.25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Inaugural Performance

A Midsummer Night's Dream

2024.8.23 — 8.25

Sejong Grand Theater

서울시발레단의 역사적인 창단 공연으로 대극장 규모의 전막 창작 작품을 세계 초연으로 선보였다. <한여름 밤의 꿈>은 셰익스피어 원작에서 영감을 받은 안무가가 그의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재해석한 컨템퍼러리 발레로 안무가 특유의 섬세하고도 창의적인 안무가 압도적인 무대 세트, 조명, 의상 등 화려한 무대 미학을 만나 환상적인 작품으로 탄생했다. 새롭게 펼쳐질 서울시발레단의 희망찬 미래를 담은 창단 공연을 통해 관객들의 새로운 예술적 취향과 안목을 확장 시켰다는 호평과 함께 서울시발레단은 힘찬 출발을 알렸다.

Seoul Metropolitan Ballet's historic inaugural performance featured the world premiere of a full-length contemporary ballet created specifically for a large-scale theater. Inspired by Shakespeare's *A Midsummer Night's Dream*, the choreography blended intricate movement with expansive stage design, lighting, and costumes for a magical production. This debut marked a promising first step for the company, expanding its artistic horizons and earning widespread acclaim.



66

셰익스피어의 <한여름 밤의 꿈>을 모티브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을 찾은 관객에게 '사랑의 묘약'을 뿌렸다.
(한국경제 이단비 무용평론가)

Seoul Metropolitan Ballet spread a 'love potion' to the audience at the Sejong Center,
inspired by Shakespeare's *A Midsummer Night's Dream*.
(Dance Critic Dan-bi Lee, The Korea Economic Daily)

지금까지 우리 무용 관객들에게 컨템퍼러리 발레는 해외 발레단 초청 작품밖에 없었으나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아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매우 의미 있는 첫 발
(조선일보 이태훈 기자)

Until now, contemporary ballet in Korea was only presented by visiting
international companies, but this performance proved that
we can do it too—and do it very well. A truly meaningful first step.
(Tae-hoon Lee, Chosun Ilbo)

무용수들의 움직임과 연출의 조화가 한 편의 영화 같은 작품이었다.
(관람객 평가)

The harmony between the dancers' movements and the direction created a film-like experience.
(Audience Review)

99





주재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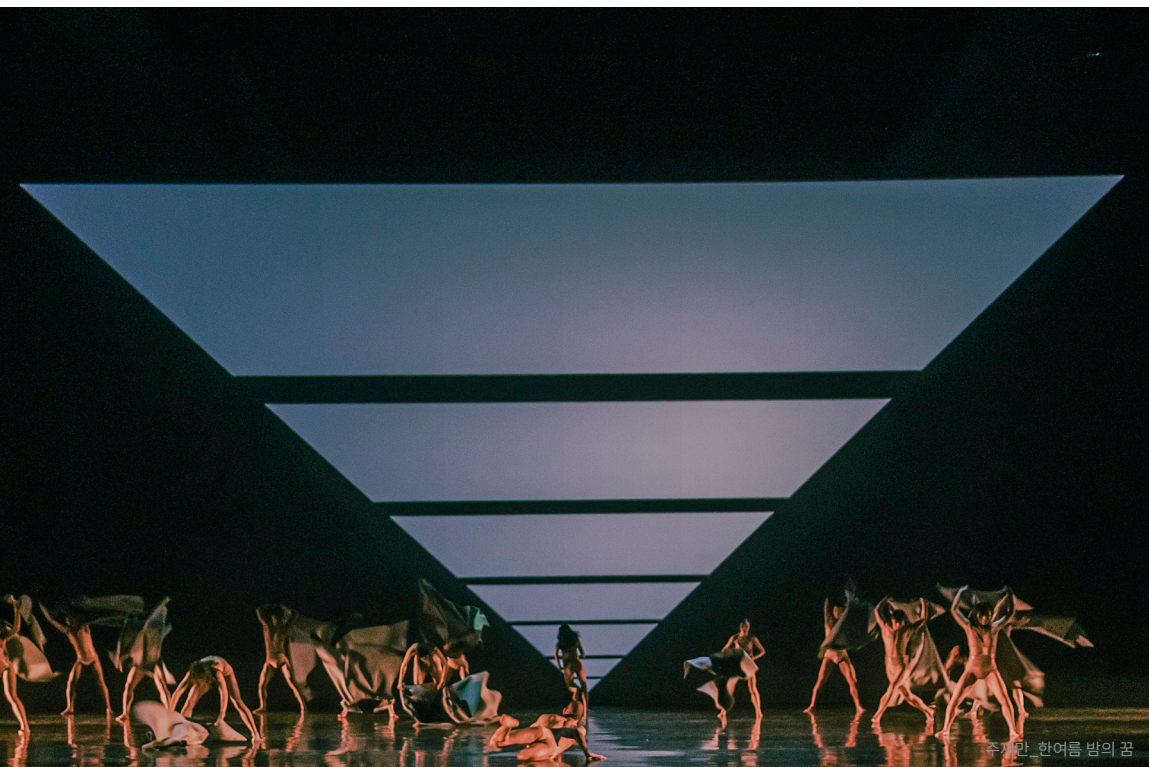
재미(在美) 안무가 주재만은 현재 뉴욕 컴플렉션즈 발레단 전임 안무가이자 포인트 파크 대학의 교수로 활동 중이며 전통적인 발레 테크닉과 라인을 바탕으로 움직임에 대한 다양성과 상상력을 담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서울시발레단의 창단 공연으로 세계 초연한 <한여름 밤의 꿈>에서는 안무가 특유의 깊은 상상력과 상징적이고 환상적인 안무를 통해 컨템퍼러리 발레의 다양한 스펙트럼과 매력을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진정 뜨거운 '한여름 밤의 꿈'을 선사하였다.

Joo Jae-man

Choreographer Joo Jae-man, based in the United States, is a resident choreographer with New York Complexions Ballet and a professor at Point Park University. Known for his innovative works, he blends traditional ballet with diverse, imaginative movement.

In Seoul Metropolitan Ballet's inaugural performance, the world premiere of *A Midsummer Night's Dream*, Joo's visionary choreography brought a symbolic, fantastical element to the stage, showcasing the full allure of contemporary ballet and offering the audience a truly enchanting experience.



KAMMERBALLETT X RITARDSCEENDO

더블 빌 <한스 판 마넨 x 차진엽>

2024.10.9 — 10.12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Double Bill *Hans van Manen x Cha Jin-yeop*

2024.10.9 — 10.12

Sejong M Theater

<카머발레> (안무 한스 판 마넨),

<백조의 잠수> (안무 차진엽)

서울시발레단의 첫 번째 해외 안무가 라이선스 작품으로 감각적이고도 세련된 색채,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움직임이 돋보이는 현대 발레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한스 판 마넨의 대표작 <카머발레>의 아시아 초연.

또한 제한 없는 상상과 두려움 없는 표현으로 장르 간 경계를 허물며 예술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안무가 차진엽의 신작 <백조의 잠수>를 더블 빌로 엮어 컨템퍼러리 발레를 향한 서울시발레단의 본격적인 출항을 알렸다.

Kammerballett (Choreography by Hans van Manen), Ritardscendo (Choreography by Cha Jin-yeop)

Seoul Metropolitan Ballet presents its first internationally licensed work with the Asian premiere of *Kammerballett*, a masterpiece by the legendary choreographer, Hans van Manen. Known for its refined color palette and bold, restrained movements, the piece captivates with timeless elegance.

The double bill also features *Ritardscendo*, a new creation by Cha Jin-yeop, known for her genre-defying approach and fearless expression. This piece marks an important step for Seoul Metropolitan Ballet as it continues its global journey.



66

한스 판 마넨, 무용계의 절대적인 아이콘이자 오늘날 춤에 독창성을 부여한 안무가!
(댄스 홀 뉴스)

Hans van Manen, an absolute icon in the dance world, has given dance its originality!
(The Dance Hall News)

깊은 물속에서 현대사회의 속도에서 벗어난 느낌 가져보길
(한국경제TV 이혜원 기자)

Experience the sensation of escaping modern society's pace, diving into the depths of water.
(Hae-won Lee, Korea Economic TV)

현대적으로 우아하고 아름답게... 컨템퍼러리 발레 매력 뽐낸 서울시발레단
(서울신문 류재민 기자)

Elegantly modern and beautiful... Seoul Metropolitan Ballet reveals
the allure of contemporary ballet.
(Jae-min Ryu, Seoul Shinmun)

99



CHOREOGRAPHER



한스 판 마넨

현대 무용계의 살아있는 전설, 안무가 한스 판 마넨은 네덜란드의 주요 무용단인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와 네덜란드 국립 발레단을 번갈아 가며 상주 안무가로 활동했다. 정제된 단순함과 명료한 형식의 안무, 선명한 색채의 의상으로 '춤의 몬드리안'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혁신적이고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운 그의 안무는 컨템퍼러리 발레의 이정표가 되고 있으며, 반세기가 흐른 지금까지도 시대를 초월해 여전히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Hans van Manen

A living legend in contemporary dance, Hans van Manen has served as resident choreographer for both Nederlands Dans Theater and Dutch National Ballet. Known for his refined simplicity, clear structural choreography, and vibrant costumes, he is often called "the Mondrian of Dance." His innovative and concise works have become landmarks in the genre of contemporary ballet, and over half a century later, they continue to resonate with audiences across generations.



차진엽

차진엽은 collective A 예술감독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로 장르나 형식의 경계를 넘어 그만의 새로운 예술 언어를 개척하며 다각적인 작품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차진엽은 서울시발레단의 신작 <백조의 잠수>에서 자연과 조우하는 신체의 자연미를 회복하는 움직임을 통해 지금의 시대에 '속도'의 의미를 되짚어 보며 일렁이는 해수면 위에서 균형을 이루며 살아 춤추는 몸을 표현했다.

Cha Jin-yeop

Cha Jin-yeop, artistic director of collective A and professor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is known for pushing the boundaries between genres and forms. Through her unique artistic language, she creates multifaceted works that explore new expressions. In *Ritardscendo*, Cha focuses on movements that evoke the natural beauty of the body in harmony with nature. She reflects on the meaning of "speed" in today's world, portraying a body in balance, dancing on the undulating surface of the sea.



THE RITE OF SPRING

창단 사전 공연 <봄의 제전>

2024.4.26 — 4.28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Pre-Inaugural Performance

The Rite of Spring

2024.4.26 — 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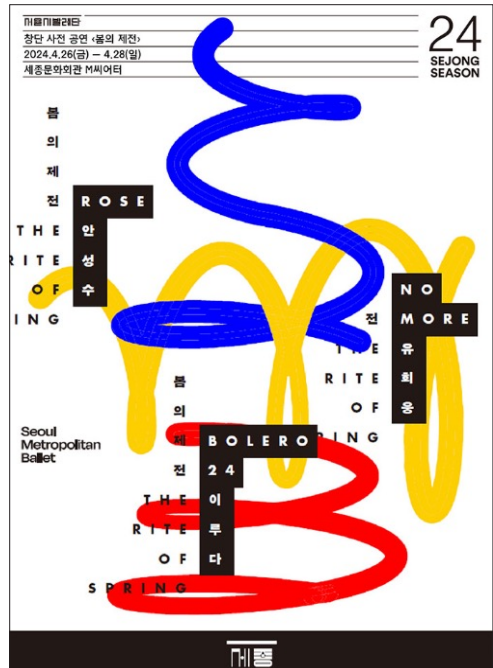
Sejong M Theater

<ROSE> (안무 안성수), <NO MORE> (안무 유희웅),
<BOLERO 24> (안무 이루다)

서울시발레단의 본격적인 창단에 앞서 대한민국 컨템퍼러리 발레의 '오늘'을 담은 세 작품을 엮어 창단 사전 공연을 선보였다. 현재, 장르를 넘나들며 활발하게 활동 중인 세 안무가 안성수, 유희웅, 이루다는 발레에 대한 과감한 상상으로 생동하는 오늘의 발레를 선보여 관객들에게 새로운 발레에 대한 신선한 충격과 기대감을 안겼다.

**Rose (Choreography by Ahn Sung-soo),
No More (Choreography by Ryu Hoi-woong),
Bolero 24 (Choreography by Lee Lu-da)**

Before its official inauguration, Seoul Metropolitan Ballet presented a pre-inaugural performance featuring three works that reflect Korea's contemporary ballet scene. Choreographers Ahn Sung-soo, Ryu Hoi-woong, and Lee Lu-da, known for their innovative approaches, showcased bold, imaginative visions, offering a glimpse into a new era of ballet.





66

무용수도, 안무가도 모두 기다렸다는 듯 에너지를 분출한 무대,
한국 발레는 다음 단계로 도약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음을 증명
(정육희 무용평론가)

The stage, where dancers and choreographers alike unleashed their energy,
proves that Korean ballet is ready to take its next step.
(Dance Critic Ok-hee Jung)

낯설고 생소했지만 새로운 무용 언어를 접한 것 같아 더없이 좋은 관람
(관람객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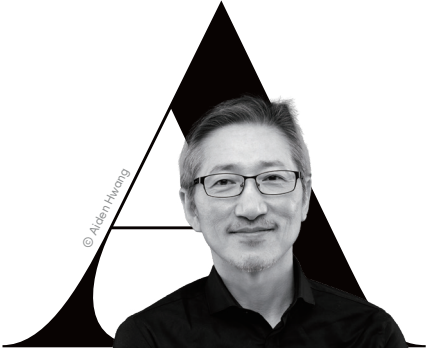
It was unfamiliar and new, but felt like discovering
a new dance language—a thoroughly enjoyable experience.
(Audience Review)

'컨템퍼러리' 서울시발레단 벌써 히트...창단 사전 공연 '봄의 제전' 3회 전석 매진
(데일리코리아 민병무 기자)

'Contemporary' Seoul Metropolitan Ballet is already a hit...
The Rite of Spring sold out all three shows.
(Byeong-moo Min, Daily Korea)

99

CHOREOGRAPHER



안성수

안무가 안성수는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을 역임, 현재 안성수픽업그룹 예술감독,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장르의 경계를 오가는 다채로운 움직임과 폭발적인 에너지를 담은 작품 <Rose>를 통해 새로운 발레단의 창단을 향한 '봄의 제전'을 선보였다.

Ahn Sung-soo

Choreographer Ahn Sung-soo, former artistic director of the Korea National Contemporary Dance Company, is now the artistic director of Ahn Sung-soo Pickup Group and a professor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유희웅

안무가 유희웅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그만의 위트 있는 시선과 움직임으로 풀어내는 독창적 작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No More>에서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라이브 드럼 비트에 맞추어 표현, 반복되는 일상을 초월하는 춤의 세계 그 자체를 구현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Ryu Hoi-woong

Choreographer Ryu Hoi-woong is known for distinctive works that explore societal issues through witty perspectives and unique movements.



이루다

안무가 이루다는 10여 년간 블랙토 무용단을 이끌며 강렬한 미장센이 돋보이는 작품을 선보여왔다.

<Bolero24>는 23년 한국발레협회 올해의 작품상을 수상한 <Black Bolero>를 서울시발레단 창단 취지에 맞게 재구성한 작품으로 미디어아트와 어우러진 개성 있는 안무로 호평을 받았다.

Lee Lu-da

Choreographer Lee Lu-da, who has led the Black Toe Dance Company for over a decade, is known for her striking mise-en-scène.



안성수_Rose



유희웅_No More



이루다_Bolero24

SEOUL METROPOLITAN BALLET IN NODEUL ISLAND

도시의 활기와 자연의 평화가 어우러진 노들섬에 조성된
서울시발레단 전용 연습실입니다.

The Seoul Metropolitan Ballet's rehearsal space on Nodeul Island
blends the city's vibrant energy with the tranquility of nature.





**‘오늘’의 발레를 향한 서울시발레단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동행을 기다립니다.**

후원 및 협찬, 투어 및 초청 관련 문의
세종문화회관 발레제작팀

tel. 02 399 1070
email. smb@sejongpac.or.kr

**Join Seoul Metropolitan Ballet on its journey toward the ballet of today.
We look forward to your support and partnership.**

For inquiries about sponsorship, collaboration, tours, and invitations,
please contact the Ballet Production Team at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tel. +82 2 399 1070
email. smb@sejongpac.or.kr

